



광주FC가 오는 4일 오후 2시 구덕운동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KEB 하나은행 K리그2 2018 3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최근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임민혁 선수가 득점 후 박진섭 감독 등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PO 불씨 살린 광주FC, 연승 행진 간다

<플레이오프>

4일 부산아이파크와 원정 맞대결 펼쳐 펠리페·여봉훈 결장 속 전술 변화 예고



GWANGJU FOOTBALL CLUB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는 프로축구 광주FC가 간절한 마음으로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4일 오후 2시 구덕운동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KEB 하나은행 K리그 2018 3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위기 속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33라운드 수원FC에 일격을 당하며 7위까지 내려섰던 광주는 지난 34라운드 FC안

양을 2:1으로 꺾으며 5위 자리를 탈환했다. 반드시 5위를 사수해야 하는 광주로서는 실낱같은 희망을 살린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부산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고, 4위 대전시제이즌이 비기거나 패하면 최종전 결과에 따라 4위도 가능하다. 광주는 시즌 종료까지 남은 2경기에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상대가 만만치는 않다. 이번 상대인 부산 역시 2위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

를 넘어서야 한다. 절실함을 가진 두 팀이기에 투지와 냉정함, 집중력을 발휘해야 원하는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다. 광주의 공격수 펠리페와 미드필더 여봉훈이 이번 부산전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점은 아쉽다. 특히, 펠리페는 안양전 멀티골로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기에 광주로서는 뼈아프다. 박진섭 감독은 둘의 공백을 전술 변화로 극복할 예정이다. 박 감독은 "둘의 자리는 김민규와 최준혁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전 승리를 위해 빠르고 왕성한 경기력이 필요하다. 전술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선수들과 미팅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올 시즌 부산과 1승 2무 무패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치열한 경기력으로 박진감을 넘겼다. 플레이오프와 2위가 절실한 이번 만남 역시 뜨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축구팬은 "2015년 K리그1에서 함께 했던 광주와 부산은 시즌 마지막 강등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당시에도 부산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광주가 승리하면서 잔류를 확정 지었다"며 "승격을 향한 두 팀의 간절한 경기가 재미를 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 시즌 첫 승을 부산 원정 경기에서 신고한 광주가 다시 한번 부산을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상기 기자 gie9928@

최경주, 골프 꿈나무들 일일 선생님 된다

내일 명사심리해수욕장서 '원포인트 벙커 레슨' 실시

완도가 낳은 세계적인 골퍼 최경주 프로(48·SK텔레콤·사진)가 광주·전남지역 어린 꿈나무들에게 벙커샷의 진수를 한 수 지도한다.



환경을 타고 세계적 인필퍼로 성장시켜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명사심리해수욕장은 그에게 없었던 훈련

장소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최경주 인비테이션대회 참가차 귀국한 최경주 프로로서는 출국(11월 중순)에 앞서 '꿈을 반드시 후환받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대로 후배들에게 전수 해주고픈 마음으로 기꺼이 응하게 됐다.

전남에서는 이담(해남동초 4년), 서헤린(1년)·김준수(이상 무안 망운중 2년), 김민혁(함평골프고 2년), 오 승(보성 예당고 2년) 등이, 광주에서는 김세진(수완하나중 1년), 정유준(진흥중 3년), 범재원(조대부중 3년), 강호진(송일고 1년), 위시현(서강고 2년) 등이 참가할 수 있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최경주 프로는 원포인트 레슨 이후 선수, 학부모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PGA 활약 후일담 및 자녀들의 골프 교육 등 골프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줄 계획이다. 최경주 프로에게 있어 완도는 어려운 /조상기 기자 gie9928@

한편, 지난 1994년 코리아 투어로 데뷔한 최경주 프로는 이후 PGA 투어, 아시아 투어, 유러피언 투어,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등을 돌며 국내 16승, PGA 투어 8승을 거두는 등 한국남자 골프의 해외 진출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조상기 기자 gie9928@



프로축구 광주FC 주치의인 이준영 조선대학교 병원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일 광주 유소년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FC 이준영 주치의 유스팀에 아시안게임 금 포상금 기부

프로축구 광주FC 주치의 이준영 교수(조선대학교 병원)가 광주 유소년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는 1일 낮 12시 구단 사무국에서 기영욱 단장 및 U-18 최수용감독, U-15 박창석 감독, 이준영 주치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FC 유소년 발전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준영 교수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의 무분과위원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주치의로 파견돼 대표팀의 12번째 선수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금메달을 따는데 일조했다. /조상기 기자 gie9928@

대회에서 광주 유소년 출신인 나상호, 김정민을 비롯한 U-23세 이하 선수들을 옆에서 지켜 본 이 교수는 유소년의 발전이 팀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느꼈고, 금메달 포상금 중 일부를 유소년 팀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준영 교수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광주의 A팀도 중요하지만 유소년들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다"며 "세계적인 축구 흐름상 유소년 축구 발전은 필수다. 광주 유소년들이 항상 자신을 믿고, 부상없이 잘 성장해 기성용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상기 기자 gie9928@

침묵 깬 손흥민... 멀티골로 시즌 첫 득점

웨스트햄과 리그컵 16강전서 2골 기록 토트넘 승리 견인... 150번째 경기 자축

손흥민(26·토트넘)이 2018-2019시즌 10경기 만에 '멀티 골'로 득점 침묵을 깬다. 손흥민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4라운드(16강) 원정 경기에서 전반 16분 선제골과 후반 9분 결승골을 연이어 터뜨렸다. 이번 시즌 각종 대회를 통틀어 10경기 만에 나온 손흥민의 1, 2호 골이다. 앞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경기, 카라바오컵 1경기에 나섰으나 골맛을 보지 못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A대표팀 경기 등을 소화하느라 피로가 누적됐던 그는 10월 A매치 이후 경기 출전을 조절하면서 피로를 조금씩 털어냈고, 마침내 멀티 골로 포문을 열어 본격적인 골 사냥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50번째 경기에 나선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팀은 3-1로 승리해 리그컵 8강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선발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페르난도 요렌테를 내세우고, 2선에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알리를 배치했다. 경기 초반엔 프리미어리그 순위로는 아 라인 웨스트햄의 만만치 않은 공세에 맞섰다. 하지만 전반 16분 손흥민의 한 방으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다. 손흥민은 알리가 뒤로 내준 패스를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파고들며 강한 원발 슈트로 마무리해 첫 골을 기록했다. 후반 9분엔 단독 드리블로 골대 앞까지 간 뒤 골키퍼와 수비수가 모두 막아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원발 슈트를 꽂아 기세를 올렸다. 웨스트햄은 후반 26분 루카스 페레스의 헤딩골로 반격했으나 토트넘은 4분 만에 요렌테의 추가 득점이 나오며 승기를 잡았다. 지난달 30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던 손흥민은 이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쉽 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며 승리를 주도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4라운드(16강) 원정 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렸다. 후반 9분에 두 번째 골 터뜨리고 세리머니하는 손흥민. /AP-연합뉴스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못 된다

축구협회, 장현수에 구각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벌금 3천만원 중징계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8·FC도쿄·사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 대

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중 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장현수는 축구협회에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



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곧바로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현수가 앞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제30회 광주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3~4일 월드컵경기장 등 14개소... 14개 종목 2천여 명 참가



선수들이 참가하는 체전이 아닌 시민들이 하나 돼 즐기는 시민 체전이 주말 광주 관내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주말인 3~4일 월드컵경기장, 광주시체육회관, 진원국체니스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30회 광주광역시민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시체육회가 주최하고 5개구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시민 생활체육대회에는 검도, 게이트볼, 줄넘기 등 13개 종목별 경기와 피구, 단체 줄넘기, 이어달리기 등 구별 대항전에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이 참여해 갖고 닦은 기량과 단합을 뽐낼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민 생활체육대회(옛 종목별 한마음축제)로 대회명을 변경해 종합 생활체육대회로 진행되고 있는 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시민 체전으로 추진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는 "30돌을 맞는 시민 생활체육대회에 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으뜸 대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강 100세 시대 시민 모두가 대회에 참여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상기 기자 gie9928@